

휴대폰 수요 둔화와 부품업체 향후 전망

세계 경기가 냉각되면서 세계 휴대폰 시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의 휴대폰수요 둔화와 부품업체 향후 전망 보고서를 인용한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 2009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된다. 2001~2008년 기간의 전세계 GDP 성장률과 휴대폰 출하량 증가율간 회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788로 나타나 휴대폰 소비가 GDP 증가율에 긴밀히 연동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2008년 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2008년 대비 3.2% 감소 전망

선진국 시장의 수요는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신흥시장 중심의 저가폰 시장은 소폭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은 환율효과 등으로 상대적 선전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노키아를 벤치마킹하여 전방위적 시장공략에 나서는 한편, 금년중 저가폰 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점유율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LG전자는 세계경기 위축으로 금년 중 고가폰 위주의 현 전략

을 고수하면서 점차적인 시장 확대를 모색할 전망이다.

1위인 노키아는 당분간 수익성 위주의 방어적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소니에릭슨과 모토로라는 각자의 주력시장인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수요가 위축되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 고급화에 따라 부품 국산화율은 하락세

휴대폰 부품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휴대폰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부품 국산화율은 하락세에 있다. 특히 핵심부품인 베이스밴드칩, 메모리 등의 수입 의존율이 높아 국내 부품업체들은 케이스, 힌지, FPCB 등 저부가가치 부문에 치중한다.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국내 휴대폰 부품업체의 실적은 2008년 들어 일시적으로 호전했다. 원화약세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부품 선호도 감소했다. 2007년 중 상당수 하위 부품업체들이 영업적자를 기록할 만큼 가중된 단가인하로 완성품업체들의 단가인하 압력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

상장된 39개 중견 휴대폰 부품업체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

세계 휴대폰 시장

선진국 시장의 수요는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신흥시장 중심의 저가폰 시장은 소폭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은 환율효과 등으로 상대적 선전이 예상된다.

나, 영업이익은 2008년 들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익은 KIKO의 영향으로 악화를 지속하고 있다. 영업이익률 평균은 4.0%('06) → 1.4%('07) → 2.0%('08)이고, 매출액순이익률 평균은 3.1%('06) → △2.0%('07) → △4.3%('08)이다. 39개사 중 KIKO 손실을 공시한 5개사의 손실규모는 2008년 8월말 현재(환율 1,089원)로 1,096억원에 달한다. 세부부품 부문별로 보면 카메라모듈 부문과 힌지 부문의 실적이 양호한 반면, 진입장벽이 낮은 케이스 부문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휴대폰 부품업계 향후 수익성 회복 어려워

전방산업인 휴대폰 완성품 업체의 업황이 회복될 경우에도 후방산업인 부품업계의 수익성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업체의 수주 확대는 난망이다. 양사의 국내생산 비중은 각각 40%와 45%에 불과하다.

완성품 업체들의 글로벌 소싱 확대는 세계적 트렌드로서 2008년부터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와 중국업체들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중국산 부품 채용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은 휴대폰 부품업체간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선도업체들을 중심으로 업계내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노력이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국내 부품업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업체로의 거래선 다변화와 기술의 선행 개발을 통해 완성품 업체의 수요에 선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수요는 둔화

2009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휴대폰 시장 수요 둔화는 불가피하다. 2001~2008년 8년 동안 전세계 GDP 성장률과 휴대폰 출하량 증가율간의 회귀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788로 나타나 휴대폰 소비가 GDP 변화와 긴밀히 연동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전체적 소비수준으로 볼 때는 고가 소비재로 분류되는 휴대폰은 지난 8년간 경기변동에 따라 매우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08년 11월 IMF가 2009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발표하여/t으며 동 수치를 적용할 때 2009년 세계 휴대폰 출하량 증가율은 -1.7%로 예측된다. 다만, 이 수치는 향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2009년 세계 휴대폰 출하량을 2008년 대비 3.2% 감소한 12억대 내외를 전망되었다.